

KYOBOTO 신창재·윤열현 각자대표, 미래전략·마케팅 시너지

교보생명 각자대표체제 6개월
상반기 순익·재무건전성 제고
신창재 '장기전략' 모색 日 출장
윤열현 'V3' 오픈 막바지 점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윤열현 사장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과 윤열현 보험총괄담당 사장이 바쁜 추석 연휴를 보냈다. 신 회장은 저금리 국면을 타개할 회사의 '장기 전략'을 위해, 윤 사장은 차세대 시스템 'V3' 오픈을 위해 연휴를 반납했다. 두 대표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각자대표 체제도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1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연휴 동안 보험산업의 저금리·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인해 여러

보험사가 도산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로 회복에 나섰지만 최근 경기 하방 위험이 다시금 확대된 상황이다. 국내 보험업계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확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을 통해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으로 최악의 저금리·저성장을 겪은 일본 전·현직 생명보험사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반면 교사로 삼고자 했다.

같은 시간 윤열현 사장은 차세대 전

산시스템 'V3'의 막바지 점검에 바빴다.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각 사업영역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각자대표 체제도 6개월째 순항하고 있다. 그간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 신사업 등 장기 전략을 짜고 윤 사장은 마케팅 경쟁력 제고, 고객중심 영업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

신 회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스테이지(INNOSTAGE)'를 출범해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생보부동산신탁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계열사 간 협업 강화 및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영업통' 윤 사장은 부임 이후 '고객중심 영업'을 기치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시작한 신계약 모니터링 외국어 상담 서비스, 대고객 챗봇서비스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험업계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교보생명의 상반기 순이익과 재무건전성은 나란히 제고됐다.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최고등급 AAA를 받았다. 또 해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5년 연속 A1 등급을 받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7일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취준생과 소통하는 채용상담회 '우리금융 잡 라운지(Job Lounge)'를 개최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취준생 소통 '잡 라운지'

150명과 카페서 채용상담회 열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취준생과 소통하는 채용상담회 '우리금융 잡 라운지(Job Lounge)'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상담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사전신청을 받아 입사를 희망하는 150여명의 취준생들이 인사담당자 및 실무자들과 격의 없이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렛츠 우리 투게더(Let's WOORI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조직문화인 소통과 협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채용상담회는 금융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젊은층의 소통방식으로 채용 상담

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쉽게 질문하기 어려운 일반 취업 박람회와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20대 취준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채용상담회는 솔직함, 즐거움, 편안함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거리인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진행됐으며, 인사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직접 알려주는 직무 상담부터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설명회까지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인재채용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아 취준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27일 '우리금융 인재 페스티벌(Festival)'을 개최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신한은행 연 3% 금리 '신한 마이홈 적금' 출시

1인 1계좌 가입, 1년 만기 상품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가입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신한 마이홈 적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마이홈 적금'은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당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2%지만 적금 만기시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우대금리 1%를 더해 3%를 받을

수 있다.

마이홈 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1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 외에 모바일뱅킹 솔(SOL)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이홈 적금을 신규한 고객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총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안상미 기자

KB국민銀, 기업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인터넷·모바일뱅킹 전면 개편
사용성 개선 위해 디자인도 변화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대면 업무를 비대면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별도 서류제출 없이 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One Stop) 신규 서비스'다.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쉽고 빠른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가입 진행 중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거래가 중단돼도 당일 중 '이어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법인에 대한 '원

스톱 신규 서비스'도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반복적인 로그인 없이 한번에 전체 사업장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기업통합ID서비스'와 모바일에서 쉽고 빠른 급여이체가 가능한 '퀵(Quick) 급여이체'도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사용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등의 디자인도 새롭게 개편했다. 기업고객의 금융 스케줄 관리를 돕는 캘린더뱅킹 기능과 은행 담당자와의 직통전화로 통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담당직원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 빈도가 높은 이체거래를 통합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사용하기 쉬운 뱅킹을 구현했다. 또 계좌 거래내역

등 다양한 조회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고객을 위해 검색어 입력을 통한 거래내역 추출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원샷 결산서류 서비스'에서는 기업이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는 "지난해 6월 출시한 기업뱅킹 기반 자금관리 서비스인 '스타(Star) CMS'의 신규 유입고객이 현재까지 4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기업뱅킹 고도화를 계기로 KB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고객들의 자금통합관리와 이체 등의 금융업무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호금융, 올 상반기 순익 1.5조... 13.7% ↓

(전년 동기 대비)

농산물가 하락 등 경제부진 손실 커

올해 상반기 신탁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이 악화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사업 부문에서 손실이 확대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2231개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5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다.

신용사업 순이익은 2조50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경제사업 손실은 9496억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30억원보다 손실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농협의 당기순이익이 1조3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신용사업 이익은 늘었지만 경제사업 손실이 커졌다.

신탁(당기순이익 1664억원)과 수협

(상호금융조합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8년 상반기(A)			'19년 상반기(B)			증감(률)(B-A)		
	신용	경제 ^{주)}	합계	신용	경제 ^{주)}	합계	신용	경제 ^{주)}	합계
신탁	2,463	51	2,514	1,613	51	1,664	△850	0	△850 (△33.8)
농협	21,007	△6,256	14,751	22,945	△9,294	13,651	1,938	△3,038	△1,100 (△7.5)
수협	907	△254	653	545	△390	155	△362	△136	△498 (△76.3)
산림	5	129	134	△31	137	106	△36	8	△28 (△20.9)
합계	24,382	△6,330	18,052	25,072	△9,496	15,576	690	△3,166	△2,476 (△13.7)

주) 신탁(복지사업, 농협) 농식품 판매, (수협) 수산물 판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

(115억원) 및 산림조합(1106억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6%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전년 동기 대비 1.98%포인트 낮아진 8.21%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총자산은 5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4% 증가했다.

총여신은 357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 늘었다. 총수신은 45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2%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87%로 전년 말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여신비율 역시 전년 말 대비 0.51%포인트 높아진 2.03%다.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여신)은 121.5%로 전년 말 대비 41.4%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